

사설

국난극복 참회대법회

불교적 깨우침은 물질적 풍요의 추구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보람을 찾는 일'에서 출발한다. 그것이야말로 이 나라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현실적인 힘으로 진정한 호국불교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5일 설악산 신봉사에서 봉행되는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 대법회'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국난극복 참회대법회는 IMF와 여러 정치·사회 문제로 매우 어려운 현실을 진정한 참회를 통해 극복하겠다는 불자들의 간절한 원력이 하나로 모이는 동체대법 정신발현의 장이다. 불자라면 사회적 병폐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그것이 대승불교의 전생명인데 그간 많은 불자들은 호국불교의 미명 아래 권력과 체제에 맹종하고 사회 곳곳에 도사리는 악의 꽃을 외면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1세기는 한국 민족에게 고통의 연속이었다. 1세기경 이방에 동화 운동이 있었고 이어 청과 일본이 멋대로 우리 국토에서 싸우게 했다. 왕비가 일본 남인들에 의해 살해되자 겁에 질린 왕은 중을 비우고 러시아 공관으로 도망가는 판국이였다. 압록강 일대와 울릉도의 산림법채권을 러시아에게, 철도부설권은 프랑스와 미국에게 넘겨졌다. 50년간 한국민은 일본에게 시달려야 했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50년간 우리는 남북간 대립의 긴장속에 민족적인 에너지를 소모해야만 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후인 21세기말 우리 후손이 20세기말의 조상을 어떻게 평가할까 걱정이다. 역대대통령의 망명, 암살에 이어 두 전직 대통령과 대통령의 아들이 형무소에 갔다. 현재도 우리는 한화로 국민 1인당 6백만 원 이상의 외채를 지고 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까지 이 무거운 짐을 져야 한다. 프랑스에 발주한 고속철도는 완전히 부실화됐다. 기업의 도

산이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의 대표적 기업들이 싸구려로 팔려가는 기막힌 상황이 있다. 북한의 상황 또한 심난하다. 3백만명이 아사직전에 있으며 위호지폐를 국가기관에서 주도할 정도로 최빈국으로 전락했다.

지금도 조선왕조말기와 다름없이 열강들은 우리를 호시탐탐 넘겨다 보며 4자회담이나 6자 회담을 거론하는 관이다. 19세기말과 20세기말의 한국 상황은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은 것이다. 한 외국의 신문에는 남북한이 둘 다 강종을 들고 남한은 돈, 북한은 식량을 구걸하는 모습이 만화로 실려 있다. 한강의 기적은 외채와 부패의 덩어리임이 이미 전세계에 밝혀졌다.

민족공동체를 발전해 가는 역사에 발맞추어 진행해야 한다. 이 명백한 사실을 외면하고 보수와 북교를 고집하는 민족에게는 좌절만이 있다. '아 옛날이여, 잘 살아보세'의 주문에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영명 빛이 없다. 사회의 빛이 뭍을 자처하는 불자는 외형적인 불사(건축이나 경승 고기방생 등)보다도 민족양심의 결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1세기에 직접적인 책임의식을 가져 후손들로부터 못한 20세기 조상들을 들어서는 안된다. 보살은 중생에 대한 대비(大慈)의 마음으로 병든다고 한다. 보살은 중생의 무의식집착체이자 양심, 착한 마음을 발동코자 하는 바람이기도 하다. 중생이 무명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온누리에 빛을 더한다.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 대법회'는 조계종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매달 각 종단이 주관해 여법하게 봉행된다고 하니 종단의 단합과 불자들의 화합을 위해서도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라가 누란지세에 처할 때마다 다 선봉에 나서서 호국의 법력을 보여주었던 한국불교의 전통을 잇는 이번 참회대법회가 성료될 수 있도록 교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

봉축행사 "간소하고 내실있게"

생명나누기 100일 캠페인 등 지역별 일정확정 준비 '순조'

불기2542년 부처님 오신날을 한달 앞두고 전국에서 봉축행사가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다. 올 봉축행사는 IMF시대를 반영, 소비성 행사를 지양하고 대체적으로 간소하고 내실있게 준비되고 있다. (도표참조)

조계종 봉축위원회는 3월 23일과 24일 직할교구 주지회의, 연등축제 참여단체 대표자 회의 등을 잇달아 갖고 행사 준비 점검과 일정을 확정했다. 봉축위 부자 회의를 갖고 행사준비를 최종 점검할 방침이다. 봉축위는 10일부터 5월3일까지를 자비의 손길 기간으로 설정 군장 병에게 위문품 보내기와 복지 시설 방문, 생명나누기 100일 캠페인 등 행사를 편다. 또 1일부터 5월 3일까지 포교활동도 다각적으로 편다. 봉축 열서보 내기와 버팀달기 지하실 등

기 등을 통해 부처님 오신 뜻을 대사회적으로 알린다는 것. 총지종과 진각종 등 각 종단들도 전방부대 OP정등식과 종단내 행사를 점검 일정 마무리 작업으로 분주하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성오)와 신도회(회장 류진수)도 26일 봉축연합대법회 결성법회를 갖고 20일부터 5월5일까지를 봉축기간으로 정해 각종 행사를 개최기로 했다. 광주전남 봉축위원회(위원장 천운)도 24일 회의를 갖고 16일부터 5월 10일까지를 봉축기간으로 정하고 봉축탐 정등식 등 7건의 행사 일정을 정했다.

부처님오신날 대구봉축위원회(위원장 무공)는 18일 시청 앞 정등식과 28일 민족통일과 대구시민을 위한 기원대법회 등 행사를 정하고 분야별로 준비에 돌입했다. (임연태 기자)

◇전국 봉축주요행사 일정표

일시	행사명	장소	주최
4.3	OP정등식	7290부대	진각종
4.14	예기봉OP정등식	예기봉	해병청행사
4.16	봉축특별법회	무각사	광주전남봉축위원회
4.16~5.5	연꽃사전전	무각사	광주전남봉축위원회
4.18	정등식	전남도청앞	광주전남봉축위원회
	정등식	대구시청앞	대구봉축위원회
4.19	연꽃사전전	무각사	광주전남봉축위원회
	연꽃사전전	무각사	서울봉축위원회
	정각장예인체육대회	동국대 중앙당	서울봉축위원회
	정각장예인체육대회	가락초등학교	광명시
	정각장예인체육대회	동국대(예정)	원주시
4.20	정등식	부산불교연합회	부산불교연합회
4.21	정등식	부산불교연합회	부산불교연합회
4.22	전통문화대전	부산시청앞	부산불교연합회
4.23~25	용성선사 공연	경남 봉은사	전통문화연구회
4.24	OP정등식	국립극장	대교회
	조천기도법회	충주중	충주중
	봉축기념연주회	무등산관광호텔	광주전남봉축위원회
4.25	연등축제	한국인보연주홀	연등축제추진위원회
4.26	연등축제	동대문운동장-조계사	연등축제추진위원회
	연등축제	조계사	연등축제추진위원회
	연등축제	광주공원-조선대	광주전남봉축위원회
	연등축제	부산역광장	부산불교연합회
4.26	연등축제	부산역광장	부산불교연합회
4.28	기원법회	프린스호텔	대구봉축위원회
4.29	기원법회	신라호텔	봉축위원회
	천불가경연대회	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대구봉축위원회
4.30	연꽃사전전	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대구봉축위원회
	연꽃사전전	사직이있는마당	사직이있는마당
5.3	봉축법요식(전국공동)	조계사	조계사
5.5	경강가족이웃사랑대회	목동청소년회관 주변	목동청소년회관
	어린이그림그리기대회	경상사	경상사
	노인재소사위안잔치	충성사	충성사
5.6	정년환영축제	청송교도소	청송교도소
5.10	학술세미나	조계종 불교회관	조계종 불교회관
5.16	청소년문화예술회관	동국대중앙당	동국대중앙당
5.17	청소년문화예술회관	보라매공원	보라매공원

법사연합회 추진위 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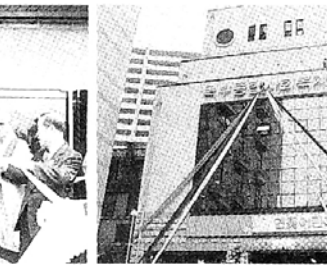
22명 발기 5월 중순 창립...범종단 성격

재가법사들의 결집체인 (가칭)한국불교법사연합회가 결성된다. 재가포교사 22명은 17일 서울 동산교육회관에서 발기인총회를 열어 창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정관 초안 마련과 회장 추대 등 창립에 따른 준비작업에 들어간다. 창립총회는 5월

중순 개최할 예정이며, 이후 사단법인화할 계획이다. 발기인은 선진규 박완일 목장배 한정섭 이하우 김철희 정병조 강건기 이종표 김덕수 권지홍 성순경 김재일법사 등 22명으로, 범종단적 성격을 띠고 있다.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3월 26일 열린 과천종합사회복지관 개관식.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전경.

과천-옥수사회복지관 '개관'

조계종 위탁복지관 27곳 시에 동시에 문을 열었다. 이로써 사회복지재단이 위탁받아 개관한 종합사회복지관은 모두 27개로 늘어났다. 과천시 발음동에 소재한 과천종합사회복지관(02-507-6319) 개관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옥수사 주지 정락

스님과 안상수 국회의원(한나라당), 이석환 과천시장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같은 시각 서울 성동구 옥수2동 옥수종합사회복지관(02-282-1100) 개관식에는 조계종 사회복지부장 혜창, 김음종합 사회복지관장 재원, 이세기 국회의원(한나라당), 고재덕 성동구청장 등 5백여명이 참석, 개관을 축하했다.

군승단 감사위원회 신설기로

군승단칙 개정 '군법당 투명화' 결의

군승단(단장 이희용)은 3월 25~26일 충북괴산 다보수련원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감사위원회를 신설해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군승단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97명의 군법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서 군승단은 기획국이 제출한 단칙 개정안과 법당운영규규 개정안을 심의, 개정키로 결의하고 이에 따른 조문작업은 기획국이 마련해 다음 총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다음 정기총회는 11월 예정되어 있으며, 11월 이전 임시총회 개최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향상과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감찰기능을 수행한다.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보장을 위해 징계의 대상과 종류를 비롯해 재소와 조사, 심의, 의결 등 징계에 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운영세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설된 감사위원회는 군법당의 업무실행 및 업무수행능력의

본사주지모임은 19일 실천불교교구회 등 교계 9개 단체가 발표한 공동선언문에 동참하며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본사주지모임은 성명에서 "새 정부의 인선은 대불교계 10대 공약사항을 이행할 것인지를 의식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인사 종교편향" 본사주지모임 성명발표

민족문화수호를위한교구본사주지모임(회장 설조)은 20일 새 정부 각료인선에서 종교간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본사주지모임은 19일 실천불교교구회 등 교계 9개 단체가 발표한 공동선언문에 동참하며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본사주지모임은 성명에서 "새 정부의 인선은 대불교계 10대 공약사항을 이행할 것인지를 의식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만평 박구원

737-8881

밝은 세상을 기원하며...

광주 무각사 개원식 및 국난극복과 불교 증흥 기원 광주 대법회

우리는 헌정사상 최초로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전쟁(6.25) 이후 최대의 국난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혼미에 빠져 있고 주춤했던 국민들의 과소비 행태는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불교는 나라가 위난에 처해 있을 때마다 그 위난을 떨치고 일어나게 했습니다. 광주 무각사는 불기 2516년 당시 상무대 사령관이던 송호림 장군이 국민의 총화 단결과 민족의 염원인 남북통일을 이루기 위한 민·관·군의 호국정신 교육 도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당시 조계종림 송광사 구산 방장스님께 의뢰하여 창건된 사찰로서 그동안 상무대의 군법당으로 사용되어오다 상무대가 장성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어 광주지역 교구본사인 송광사에서 관리하게 된 도량입니다. 무각사는 광주광역시 중심지에 위치하면서 10만여 평의 시민 공원 안에 10여 동의 요사와 110평에 이르는 큰 법당 등으로 이루어져 도심 포교와 도시민의 정신 교육 도장으로써 최적의 입지 조건이 갖추어진 곳입니다. 군법당으로 사용하던 무각사를 재회 전남과 광주 불교에서 인수·관리하게 되어, 그동안 수리·보수를 마치고 오는 4월 11일 개원식과 함께 호국정신과 남북통일 기원의 창건 정신을 살려 국난극복과 불교증흥 기원 대법회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불교가 흥할 때는 나라도 흥했으며 불교가 쇠퇴할 때는 나라도 쇠퇴하였습니다. 무각사 개원과 함께 호남 불교가 증흥하고 나라의 위난이 하루속히 극복되기를 기원합니다.

- 1부** (오후 2:00~4:00)
- 고불문 보성 큰스님(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 대회사 지선 스님(백암사 주지)
 - 법어 월주 큰스님(조계종 총무원장)
 - 격려사 천은 큰스님(전남 사본사 협의회장)
 - 축사 송언종(광주시장), 허경만(전남도지사), 박상규(국인회의 연등회장), 박철연(자민련 불자회장)
- 일시 : 불기 2542년 4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
○ 장소 : 대한불교 조계종 광주 무각사
○ 주최 :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총림 송광사
○ 주관 : 대한불교 조계종 광주 무각사
○ 후원 : 전남 불교사본사 협의회, 광주불교사암연합회, BBS불교방송, btn 불교텔레비전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산1번지 무각사
전화 062)383-0108 팩스 062)383-0109
광주불교사암연합회 062)376-3233/5



2부 (오후 4:00~6:00)

특집 공개방송 **광주 시민과 함께**

B·B·S·다·시·듣·싶·은·노·래

MC **김병조**

♪ 남진·현숙 ♪
국악인 신영희

■ 악단 : 박찬일 악단 (6인조)

▶ 방송 : 1998. 4. 19(일) PM 8:00~9:00